

##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29
----------	----

제출년월일 : 2001. 7. 24.

발 의 자 : 이경식 의원  
외 4인

### 1. 제안이유

- 화원읍에 소재하는 대구교도소는 화원시내에 위치한 관계로 도시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대구교도소 이전을 촉구 건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 2. 주요건의내용

-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는 1968년 준공 당시는 화원읍 일대가 80%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도시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대규모 아파트 및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2,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시가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한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인근 주민의 조망권 피해 및 건전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균형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전을 촉구 건의함.

붙임 : 1.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1부. 끝.

##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건의문

선진조국의 실현과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선진 법치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원 법무부 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달성군의 천 주민들은 시대적 과업인 초인류국가의 건설과 국가적 의지에 발맞추고자 법질서 확립과 지역발전에 솔선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역이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대구광역시의 전원 주택지로 또한 지역개발의 근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교도소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교육상 혐오시설로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주민의 정서 함양에 많은 지장을 주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은 과거 형무소라는 잔존의식을 떠나서라도 도심속의 교정시설의 교외이전계획 차원에서 또한 지역민의 이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대구교도소 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대구교도소는 1965년 우유가공 공장을 건립한다는 명분아래 주민들의 동의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 1968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현 위치에서 33년간 주민들의 불만을 접어둔채 법무 교정기관의 역할만을 다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968년 준공 당시만 해도 화원읍 일대는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인근의 건물 또한 거의가 단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조망권에 큰 피해가 없었으나,

그동안 도시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대규모 아파트 및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2,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시가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한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동국고등학교,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달성중학교, 화원초등학교, 화남초등학교 등 각종 학교와 시장,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서 위치하고 있으나,

도심속의 교도소라는 기형적인 현상 때문에 건전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균형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혐오시설의 기피나 지역이기주의 넘비현상의 발로는 결코 아니며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절대 아님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건축물 고도제한은 물론, 오·폐수 방류, 시국 사범과 관련한 수많은 시위들을 감수해 왔습니다만, 법무부의 노후 및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교외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대구교도소 이전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하는 바 이에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일동은 대구교도소의 조속한 이전을 간곡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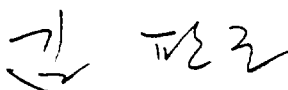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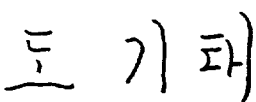



2001년 7월 24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일동**

【大邱矯導所移轉促求建議案】

- 李敬植議員 外 4人 發議 -

# 서명날인서

의원명	서명	날인 (등록전 인감도장 사용)
이경식		
김판조		
도기태		
박노설		
이현근	